

유유, 미국 바이오벤처 크리스탈 지분투자

제약기업인 유유는 국내 벤처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와 공동으로 미국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및 항암제 전문 연구 바이오벤처인 스마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지분투자 등 제휴를 맺었다.

유유는 스마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초기지분을 투자하기로 했고,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향후 지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신개념 항암제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동개발하기로 한 항암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표적 단백질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발굴한 것으로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분사한 회사로 컬럼비아대의 연구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컬럼비아대의 신개념 항암제 특허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유유의 유승필 회장은 “유유는 우수 의약품을 개발해 보급해오면서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스마트 바이오사이언스와의 투자협력을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10/14>